

◎ 뉴스의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나누고 맡아 읽어 본 후, 질문에 대해 봅시다.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 역할을 나누어 볼까요? 가로 안에 이름을 쓰세요.

앵커( ) | 기자( )

토마스 타반 아콧( ) | 존 마옌 루벤( )

**앵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다, 마흔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 의대 출신이었던 이 신부는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줘서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렸었죠. 올해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의사를 꿈꾸던 남수단 소년이 어느새 자라서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기사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기자.

**기자:** 지난 2001년 남수단을 찾은 이태석 신부는 선교 활동에 앞서 오랜 내전에 지친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또 병원이 없어 작은 상처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직접 병원을 지어 환자를 돌봤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이태석 신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태석 신부를 따르며 병원에 자주 놀러 갔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타반 아콧(고 이태석 신부 제자):** 신부님은 밤에도 거의 주무시지 않았어요. 늘 병원에 남아서 늦게까지 환자를 진료했지요. 또 먼 마을까지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봤어요.

**기자:** 이태석 신부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 소년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실제 1년 전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씨와 함께 한국에 온 존 씨도 얼마 전 발표된 의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태석 신부와 후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온 두 명의 제자가 1년 사이 잇따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타반 아콧:** 지금 제 모습을 신부님께서 보신다면 등을 두드리시며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자:** 한국어도 서툰 두 소년이 한국에서 의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태석 신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존 마옌 루벤(고 이태석 신부 제자):**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늘 감동을 받았어요. 제게는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이 늘 감동이었고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닮고 싶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훌륭한 직업이구나, 의사가 되면 신부님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어요.

**토마스 타반 아콧:** 한국에서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수단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늘 다짐하며 견뎌요.

**기자:**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년입니다. 작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존과 토마스 씨는 한국에서 수련 생활을 마치는 대로 수단으로 돌아가 이태석 신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Q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의 이름을 써 볼까요?**

**Q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의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Q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Q 이 뉴스를 읽고 느낀 점을 써 보세요.**